

김 동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관련요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간호학과
김 은 심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관련요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김 동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김 은 심

인 준 서

김은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전 나 미 
심 사 위 원 김 애 리 
심 사 위 원 김 동 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인생에서 성신여자대학원 노인전문 간호사과정을 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 만큼 제 인생 전체를 볼 때 가장 큰 발전과 발돋움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 주위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당신의 바쁜 일정 속 에서도 뜻을 담고 있는 논문이 되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틀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신 지도 교수님이신 김동희 교수님은 제 인생의 커다란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구과정의 지도는 저를 성장시키는 매우 큰 동력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아 주신 전나미 교수님의 세심하며 명철한 제안과 배려는 연구자로서 더욱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바쁘신 가운데 이 논문을 열과 성으로 심사해 주시고 세심한 제안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애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진료센터와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홍인표 박사님과 한국다문화연대 이사님들 강화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숙자 센터장님과 직원여러분 설문응해 주신 결혼이주여성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배움의 길로 이끌어 주신 유인순부장님의 배려와 따뜻한 관심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관심 가져 주신 황정혜 선생님과 늘 응원해주는 신수영 선생님과 우리 동기의 브레인인 송지수 선생님,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해주신 구은숙 선생님과 병동식구들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논문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강미령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소중한 우리 가족, 격려와
관심으로 지지해 줬던 사랑하는 남편 임동진씨, 그리고 우리 공주님들 사회
초년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큰 공주 지희,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작은 공주 선희 언제나 사랑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멀리서
항상 격려해주시는 부모님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14년 5월

김은심 올림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 N병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와 경기도 G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한 결혼이주여성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65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크게 일반적 특성 질문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도구(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Parenting Stress Index: PSI),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QR)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문제 측정도구(건강증상 조사서-48)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문제 점수의 평균은 81.61점이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72.71점, 양육 스트레스 점수 평균은 79.24점, 사회적 지지 점수의 평균은 95.85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점수는 직업, 계획된 임신 여부, 학력, 자녀수, 양육책자 유무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결혼생활 만족도($F=8.819, p=0.00$), 남편의 도움($F=6.308,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경제상태($r=-.442, p<.05$)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전 분석에서 건강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의 특성인 경제상태, 남편도움, 결혼생활 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beta=0.397$, $p=0.037$)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에는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도움, 경제상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관련 있으며 특히 양육 스트레스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 관련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도움, 경제상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특히 양육 스트레스 중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의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용어의 정의	3
II. 문헌 고찰	6
1.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6
2. 문화적응 스트레스	7
3. 양육 스트레스	10
4. 사회적 지지	12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설계	15
2. 연구 대상	16
3. 연구 도구	16
4. 자료 수집 방법	21
5. 자료 분석 방법	22
IV. 연구 결과	23
V. 논의	31
VI. 결론 및 제언	36
참고 문헌	40
ABSTRACT	47
부록	48

표 목 차

<표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 구성	18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3> 건강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	26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27
<표 5> 일반적 사항과 건강문제와의 관계	28
<표 6> 문화적응,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	29
<표 7> 건강문제와 관련된 요인들	3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로 유입된 외국국적의 이주민은 1980년대 후반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체류 형태 및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중반 외국인유학생과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이 주가 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대폭 증가 하였다. 결혼 이주민 중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220,687명의 국적 비율은 중국, 동남아,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9.2%인 196,78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2013년 7월말 현재 다문화 가족은 2013년 기준 75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가 28만 명, 배우자 28만 명, 자녀 19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이렇듯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문화 가정은 부부관계, 자녀양육문제, 사회적응의 문제,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진주, 2004).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과 함께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하여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ry, 1987).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매우 높

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ry, 1998). 이들의 대다수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 기간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단일문화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언어 갈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은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희, 추연식, 2012). 이렇듯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개인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표준을 상실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주인 여성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 등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소통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문제가 자신의 미숙함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으며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지적 발달이나 언어발달이 늦을까봐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보라, 2007; 권오희, 2006; 한건수, 2006). 일반 가정 어머니들 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모 역할 수행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어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인 여성의 건강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와 가정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이 결혼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이를 완충시켜줄 사회적 지지관계나 지지망도 부족한 실정이다(김나영, 2007). 그러므로 결혼이주 여성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며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부적절한 대처 방안, 지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임상적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Berry, 199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 2) 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기간, 최종학력, 지각된 경제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도움, 동거가족 여부, 병원이용의 용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문제를 파악한다.
- 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건강문제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 여성이란 결혼 전 국적이 달랐던 남녀가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속의 여성을 의미한다(고은주, 2009).

2) 건강 문제

건강문제는 병리적인 질병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신체, 정신, 사회적 불편 증상의 정도(오가실, 1993)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는 오가실(1998)이 개발한 증상 체크리스트 48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건강증상조사서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스트레스원)을 말하며, 새로운 문화로 그들이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이다(Berry, 1997; Hovey, Magana, 2002).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d와 Asrabet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홍미기(2009)가 국문으로 번역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아이의 출산에 따른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 자신, 아이의 상호작용, 아이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과 평가 과정에선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한다(김동희, 1997).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에 의해 개발된 PSI(Parenting Stress Index)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에게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는 위기 시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Kaplan, 1974) 사랑이나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

로써 인간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이소영,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Brandt, Weinert(1981)가 개발한 개인자원 질문지(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PQR)를 서미혜, 오가실(199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문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국가에 이주해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활 습관과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의 부재와 가정 내 폭력, 인신공격, 등의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 이때 개인 대처능력이 초과될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한 다양한 건강관련 문제 및 사회 정서적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남성 중심적이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화적 스트레스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 발생률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김현실(2011)은 결혼이주여성의 63.6%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다양한 현실과 문제에 부딪히며 그 중 45.4%가 경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선희(2011)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불안,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다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Berry, 1997).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친밀하고 상호존중적인 가정을 유지하며 남편의 지지가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문제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김인철, 2008), 또

한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문제 점수가 낮았다(남인숙, 안숙희, 2011).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건강문제 점수는 높게 나타났고(정애화, 김혜진 & 정현자,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충격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건강문제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김오남, 2007). 양육 스트레스(이교일, 2011), 사회적 지지는 주변 및 모국 문화 이해노력이 신체 및 건강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며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의 주변인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건강문제 점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은숙, 2008).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포함하여 건강문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가정하며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편적인 건강증진행동, 의료기관 이용, 생식 건강상태 등의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문제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이란 하나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라고도 한다. Berry(1991)는 문화적응을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 집단들이 지속적인 직접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

고 개념화 하였다. 이민자들은 모국의 문화와 경합하는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를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심리 사회적 긴장과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Berry, 1997)으로,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치 안에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들이 익숙한 환경과 지지체계의 상실, 실업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좌절, 상이한 문화적 가치체계 및 실천양식으로 인한 혼란, 언어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을 경험하며 개인의 적응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면서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격, 적대감 그리고 두려움 같은 다차원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오현승, 2014). 또한 자신의 모국이나 문화에 대하여 무시 받을 경우 생기는 분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걱정, 현재 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소속감, 열등감, 고국으로 돌아갈 문제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조정희, 2010).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인 것이 이주한 나라의 특성, 즉 다문화적 경향의 국가인지 단일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 국가인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충욱 외, 2010). 문화적응 집단의 유형(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동화주의적 정책,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선택적 배제 정책을 실시하는 사회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모경환, 최충욱 & 임현경, 2010). 문화적응 유형 요인에 따라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 Berry(1988)는 현지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모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차원의 관점으로 적응의 유형을 통합유형,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을 제시하였다. 통합유형(Integration)은 자기고유의 문화

적 주체성은 계속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새로운 문화도 거부하지 않고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순응해 나가는 형태이다. 동화유형(Assimilation)은 개인이 자기 고유의 문화주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 접한 문화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으로 주류 문화에 지속적으로 다가가 흡수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분리유형(Separation)은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자신의 고유문화를 계속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주변화유형(Marginalization)은 자신 고유의 문화주체성도 거부하고 유지에도 관심이 없으며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갖고 적응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형태로 문화해체, 거부, 혹은 소외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분리유형이나 주변화유형은 통합유형, 동화유형의 경우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ry, 1988).

또한, 이주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특징, 즉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 문화를 고수하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래, 1997; 하밍타이, 2005).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대처 전략을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어(Berry, 1990)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노하나, 2007; 이진숙, 2006). 교육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의 이주민들이 언어능력, 이주 후 직업, 수입 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게 되어 좀 더 새로운 문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Hovey & Magana, 2002). 또한 이주하여 생활한 기간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문화 적응 초기단계에 가장 높고, 이주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적응이 진행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된다. 즉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

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아진다(윤영주, 2001; Ward & Kennedy, 1996). 또한 높은 수입과 직업적 배경 등은 이주사회에 대처하도록 하는 자원이 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요인이 된다(노하나, 2007; Shem & Takeuci, 2001; William & Berry, 1991). 도시와 농어촌지역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이 도시보다 사회적 편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거주 지역도 중요한 영향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이 의사표출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커서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 부담과 가사 노동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남인숙, 안숙희, 2011).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건강문제는 생활 만족도, 부부갈등, 나아가 가족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어 가족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나영, 2007; 이승신, 2008; 채병희, 2009; 김오남, 2006; 오광실, 2010; 김혜신, 김정신, 2011). 이렇듯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3.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며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된다(김미숙, 2005; Abidin, 1990).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쳐 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동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숙, 문혁준, 2005).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에게 부담감,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김성희, 2011; Luster, Okagaki, 1993).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자녀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미취학아동인 만 6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엄마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은 부모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언어, 문화 및 생활양식의 차이로 자녀들 대부분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부모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시댁과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등 자신으로 인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인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양육비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이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과중한 부담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건강상태는 한국인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와 자신감이 낮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이고 미래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구순주, 1997; 임지향, 이홍표, 2010).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에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건강 뿐 아니라 이주여성 본인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본

인과 자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 할 것이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과 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Cohen, Hoberman, 198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받고 관심 받는 대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뿐 아니라 대화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해 한 구성원임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Cobb, 1976). Kaplan(1977)은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는 위기 시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박성희(2005)는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로 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물질적 및 정보적 지지를 말한다(김연수, 2012).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개인의 기본적 사회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사람들로 부터 정서, 동정, 이해, 수용 및 존중과 같은 사회 정서적 도움과 충고, 정보제공, 가족의 도움, 혹은 업무책임, 재정적 원조와 같은 실제적 지지, 그리고 인식체계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형태의 인정 혹은 정보의 지

지, 또 기본적인 사회정서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의 정서적 지지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하는 역할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결혼이주여성은 원 가족과 떨어져 있고, 이주국의 문화나 사회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배우자와 그 가족만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적 지원으로써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 자원이 된다(안준희, 조정희, 2011). 그러나 대부분 이주여성들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짧은 맞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남편과의 연령차이, 언어장벽(한건수, 2006)과 역할기대의 불일치,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박경동, 2007)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지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의 지지 외에도 시댁식구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의 경우 시부모와의 갈등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나타나(강유진, 1999; 홍기혜, 2000) 지지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외의 다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이 어려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나영, 2007).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2007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나 공단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교류가 더 적은 편이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한군데도 없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12.3%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하였고, 베트남과 몽골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은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이주여성들도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 속에서 여가 및 사회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 동료 및 사회기관의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는 곧 사회적 자원이 되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이주재, 김순규, 2010).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중재한다면, 직·간접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건강문제 관련요인을 일반적 사항,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중심으로 확인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N병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와 경기도 G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한 결혼이주여성을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 2) 자녀가 있으며
- 3)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 4)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총 65명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 변수의 수 6개로 산출했을 때 본 연구의 적정 표본 크기는 60명으로 적정수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크게 일반적 특성 질문지, 어머니의 건강 문제 측정도구, 문화 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5개 언어로 번역 하였다. 영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영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의 역 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하였고 그 외 언어는 유학생 통역사의 역 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질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예비조사와 문헌고찰 결과 어머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가족의 특성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특성을 개발하였다.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기간, 사회 경제적 상태, 계획된 임신 여부, 건강문제, 양육 교육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고, 가족 특성은 동거 가족 수, 동거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도, 그 외 병원이용의 용이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2) 건강문제 측정 도구

건강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Derogatis(1997)가 개발한 증상체크리스트-90을 기초로 하여 오가실(1993)이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건강증상조사서-48를 사용하였다. 건강증상조사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과민성, 우울, 불안, 공포, 적대감, 정신증, 추가적 차원의 9개 차원 90문항을 신체, 정신, 사

회적 건강증상으로 요약하여 48개 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로(오가실, 1992)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다. 건강문제 증상 조사서는 최근 1주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항목에 체크한 뒤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항상 있다' 4점으로 배점한 4점 척도의 도구이고 최저 48점에서 최고 192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andhud & Asrabe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홍미기(2008)가 국문으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각 문항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이다. 원 척도의 Cronbach's α 는 .98이고 개인별 점수는 최저 36점으로 최고 180점으로 나타난다. 하위영역으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35문항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Cronbach's α 의 값은 모두 .65에서 .87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 문화 적응 스트레스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지각된 차별감	8	3, 9, 11, 14, 17, 25, 26, 29	.87
향수병	4	1, 6, 21, 35	.68
지각된 적대감	5	4, 15, 20, 24, 33	.84
두려움	2	7, 27	.65
문화충격	3	2, 13, 22	.69
죄책감	2	10, 34	.70
기타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11	5, 8, 9, 16, 18, 19, 25, 28, 30, 31, 32	.83
전체	35		.94

4)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Parenting Stress Index: PSI)

결혼이주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하기 위하여 PSI(Parenting Stress Index)(Abidin, 1990)를 김동희(1997)가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도구는 처음 제작 되었을 때 당시 총 101문항이었으나, 1990년에 각 하위 척도 당 12 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이 개발되어 PSI/LF(long form)와 PSI/SF(short form)로 구별하여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I/SF을 사용한다. PSI는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 되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영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영역)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의 스트레스 측면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여가부족, 역할가중, 남편과의 문제, 사회생활의 변화 등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구의 1번에서 12번까지이며,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측면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자녀와의 상호 작용이 부모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구의 13번부터 24번까지이다. 그에 비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측면은 도구의 25번부터 35번까지로 아이가 울고 보채거나 성가시게 한다거나 습관 기르기, 걱정거리 등 부모가 다루기 힘든 행동상의 문제를 아동이 어느 정도 지녔는가를 측정함으로써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려준다.

응답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까지이며 부모영역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 부모-자녀 관계영역의 가능 점수한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 아동 영역의 가능범위 점수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5)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정도의 측정은 Brandt, Weinert(1981)가 개발한 개인자원 질문지(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QR)를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인자원 질문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2부의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 확산, 지도, 지침의 획득자원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지지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7점으로 구성된 7척도의 도구이다. 최저 21점에서 최고 147점까지의 가능한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 N병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와 경기도 G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연구자와 기관의 종사자에 의하여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5개 언어로 번역 하였고 영어는 영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의 역 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하였고 그 외 언어는 유학생 통역사의 역 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언어들은 각 나라 통역 봉사자와 최대한 합의를 본 다음 여러 번 읽어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는지 교육과 회의를 거쳐 숙지하는 과정을 가진 후 각 나라별로 문화적 내용에 대한 문항 내용의 적합 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명의 예비조사 후 내용의 이해도와 연구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 후 사용하였다. 모두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된 설문지를 제공하고 교육된 다문화센터 통역 봉사자와 같이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33개 영어 17개 베트남어 15개 중국어 5개를 사용 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70부를 배부하여 70부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65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PASW WIN versio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건강문제 점수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 동거 가족 여부, 병원이용의 용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따른 건강문제는 T-test,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건강문제 관련 요인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31.31세였고, 20세-29세가 46.2%, 30세-39세가 44.6% 순서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있는 경우보다 없는 대상자가 76.9%로 많았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37.5%가 대학교 졸업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61.5%였다. 계획된 임신은 그렇다가 63.1%로 많았으며, 동거 가족 수는 4명이 32.3%, 3명이 29.2%, 5명이 14명, 21.5%로 조사 되었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44.6%로 동일하게 조사되었으며, 지각된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58.4%, 어려운 편이다가 27.7%, 매우 어렵다가 7.7%, 여유가 있는 편이다가 6.2%로 나타났다. 남편 도움은 많이 도와준다가 43.1%로 보통이다 41.5% 보다 조금 많게 조사되었다. 출신국은 베트남이 30.8%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2.3% 가장 적었다. 양육책자를 받아 본적이 있는 대상자가 60.0%로 많았으며, 자녀수는 1명이 49.2%로 가장 많았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5)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0~29세	30	46.2	31.3±6.24
	30~39세	29	44.6	
	40~49세	4	6.2	
	50세 이상	2	3.1	
직업	있다	15	23.1	
	없다	49	76.9	
지각된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5	7.7	
	어려운 편이다	18	27.7	
	보통이다	38	58.4	
	여유가 있는 편이다	4	6.2	
학력	초등학교	3	4.7	
	중학교 졸업	14	21.9	
	고등학교 졸업	21	32.7	
	대학교 졸업이상	25	39.1	
	기타	1	1.6	
종교	있다	40	61.5	
	없다	25	38.5	
계획된 임신	그렇다	41	63.1	
	아니다	24	36.9	
동거가족 관계	부부	39	60.0	
	시댁식구	19	29.2	
	기타	7	10.8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29	44.6	
	보통이다	29	44.6	
	만족하지 않는다	7	10.8	
건강상태	건강하다	24	36.9	
	보통이다	33	50.8	
	약하다	8	12.3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65)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남편 도움	많이도와준다	28	43.1	
	보통이다	27	41.5	
	도와주지않는다	10	15.4	
출신 국	중국	8	12.3	
	필리핀	19	29.2	
	베트남	20	30.8	
	몽골	15	23.1	
	기타	3	4.6	
양육 책자	있다	38	60.0	
	없다	26	40.0	
자녀 수	1명	32	49.2	
	2명	25	38.5	
	3명	8	12.3	

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

건강문제 점수 범위는 48~144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81.61점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30~140점까지이며 평균 72.71점, 양육 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45~137점까지로 평균은 79.24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 점수의 범위는 48~129점까지이며 평균 95.85점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건강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

(N=65)

내용	평균±표준편차	범위
건강문제	81.61±22.62	48~144
문화적응 스트레스	72.71±21.35	30~140
양육 스트레스	79.24±17.59	45~137
사회적 지지	95.85±19.84	48~12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증상 조사는 직업, 계획된 임신 여부, 학력, 자녀수, 양육책자 유무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결혼생활 만족도 (F=8.819, p=0.000), 남편의 도움(F=6.308, p=0.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N=65)
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s test
직업	있다	15	78.60±27.45	.343	.560	
	없다	49	82.53±21.17			
계획된 임신	그렇다	41	77.15±19.51	4.365	.410	
	아니다	24	89.04±25.77			
학력	초등학교	3	103.67±37.73	-1.101	.370	
	중학교	14	78.14±19.63			
	고등학교	21	83.45±36.95			
	대학교이상	25	81.29±19.71			
	기타	1	80.00± 0.00			
결혼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a	29	70.70±12.45	8.819	.000	a<b<c
	보통이다 ^b	29	87.10±24.45			
	만족하지않는다 ^c	7	102.42±23.78			
양육 책자	있다	38	85.47±18.89	-3.757	.128	
	없다	26	90.58±24.91			
자녀 수	1명	32	76.37±21.30	2.488	.091	
	2명	25	89.28±22.65			
	3명	10	78.14±23.93			
남편 도움	많이도와준다 ^a	28	72.03±21.54	6.308	.003	a,b<c
	보통이다 ^b	27	85.84±21.60			
	도와주지않는다 ^c	10	97.40±16.78			

* p < 0.05 ** p < 0.01

4.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과 건강문제와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기간, 동거가족 수, 최종학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건강문제와 경제 상태($r=-.442, p<.05$)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았다<표 5>.

<표 5> 일반적 사항과 건강문제와의 관계

(N=65)

	건강문제	지각한 경제상태	결혼기간	동거 가족수	최종 학력
건강문제	1				
지각한 경제상태	-.442 (**)	1			
결혼기간	.100	-.185	1		
동거 가족 수	-.157	.206	.118	1	
최종학력	-.200	-.245	-.030	-.128	1

* $p < 0.05$ ** $p < 0.01$

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건강문제와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r=.560, p<.01$), 양육 스트레스($r=0.662, p<.01$), 사회적 지지($r=-.289, p<.05$),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적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았다<표 6>.

<표 6>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

(N=65)

변수	건강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문제	1.000			
문화적응 스트레스	0.560**	1.000		
양육 스트레스	0.662**	-0.769**	1.000	
사회적 지지	-0.289*	-0.563**	-0.325**	1.000

* p < 0.05 **p < 0.01

6. 건강문제와 관련 요인 분석

건강문제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전 분석에서 건강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경제상태, 남편도움, 결혼생활 만족, 관련 요인 3개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건강문제와 관련 있는 요인은 양육 스트레스($\beta=0.397$, $p=0.037$)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48.8%였다<표 7>.

<표 7> 건강문제와 관련된 요인들

(N=65)			
변수	β	t	p
문화적응 스트레스	0.129	0.717	0.478
양육 스트레스	0.397	2.160	0.037
사회적 지지	0.006	0.044	0.965
경제 상태	-0.205	-1.524	0.135
남편도움	0.086	0.738	0.465
결혼생활 만족도	-0.189	1.517	0.137
$R^2 = 0.553$		Adj. $R^2 = 0.488$	
* p < 0.05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관련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건강문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결혼이주민의 건강 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재와 의료기간의 역할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있다.

첫째, 건강문제의 평균 점수는 81.61점(역산시 158.39)으로 같은 도구로 역산하여 중년 여성을 연구한 임희정(2003)의 171.8점 보다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임지영(1996)의 연구의 80~97.5점의 하안선의 점수를 나타내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는 일반 중년 여성들보다 높으며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들의 건강문제와 비슷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가 취약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김오남, 2007; 김인철, 2008)로 이들의 건강문제가 취약하며 이들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방법이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79.24점으로 같은 도구로 국내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2010)의 72.4점,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미예, 박동영(2009)의 81.86점,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김희순 외(2005)의 83.3점과 다소 높거나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와 자녀의 연령대의 범위가 넓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추후 결혼이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대상을 연령별로 나누어 심도 깊게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관련 요인 중 일반적인 특성에서 결혼생

활 만족도($F=8.819$, $p=0.000$), 남편의 도움($F=6.308$, $p=0.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생활은 결혼한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혜자, 2007).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위해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삶과 건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도움은 한국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높은 삶의 질과 건강문제의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대두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남편의 도움은 시어머니와 살지 않는 핵가족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문제 점수와 관련 있었다(서민숙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남편의 도움이 결혼이주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도움이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낮게 나타났다(고은주, 2011). 이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지지 상황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김오남, 2007; 김인철, 2008). 남편의 도움은 앞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결혼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결혼생활 만족도와 남편의 도움을 같이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족 진료센터 등에서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도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 수립이나 부부참여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지각된 경제상태도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인 경우 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과 서비스가 제한되게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노연희, 강지현,

2011; 노혜련, 박선영, 2004).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이주여성이 직업이 있고 남편의 월 소득이 높으며 언어능력이 뛰어 날수록 경제 상태가 좋아 삶의 질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건강문제 점수도 좋게 나타나(김주희, 2012; 최정혜, 2011) 이러한 경제적 영향의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중재 프로그램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r=0.560$, $p<0.01$), 양육 스트레스($r=0.662$, $p<0.01$), 사회적 지지($r=-0.289$ $p< 0.05$)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적었다.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각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이소래, 1997).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건강상태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이정용,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경, 2011). 결혼이주민여성은 한국어 의사소통정도가 원활하고, 친정방문횟수, 친구(본국, 한국, 타국)의 방문횟수, 한국어 실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남편과의 관계, 본국의 친정의 생활수준을 통제 변수로 하였을 때 한국어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서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에 있어서 우리말 서비스, 결연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문화적

응정도가 높아서 스트레스정도가 낮고 건강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덕희, 이경은, 2010).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 이주한 초기부터 우리나라 문화에 빠른 시일 내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건강문제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 교육프로그램, 명절 알리기, 우리문화 이해하기 체험 학습 캠프, 역사 체험교실 등의 문화체험 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나라 문화적응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도 건강문제와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 주변인들이 결혼 이주여성과 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고(안은숙, 2008) 사회복지 서비스나 지역사회 제공 프로그램 이용 등 정보적 지지를 받는 경우(홍혜정, 정의식, 2014)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과도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박경동, 2007; 한건수, 2006) 다른 기관이나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이 어려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나영, 2007).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회적 지지 구축에 열악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 등 주변인들로부터의 정서적,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 교육, 서비스 활용 형태의 사회적 지지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모든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 건강문제에 관련된 요인

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센터 방문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시 대부분 본인의 문제 보다 자녀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양육 관련 변수가 더욱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사회적 지위,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임지향, 이홍표, 2010)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한국인 어머니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임지향, 2010).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상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아이의 문제는 다시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장영애, 2011). 이렇듯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생생활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양육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상태와 관련되게 된다. 그러므로 양육 기술을 높여주고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공적 지지와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와 연계한 의료진의 정기적인 방문상담과 지속적인 서비스와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가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첨가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아기가 아플 때, 한국말 가르치는 것, 양육비 부족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유치원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아이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학교생활 적응문제, 성적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양육 스트레스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공은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중재가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은 서울시 N병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와 경기도 G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한 결혼이주여성 중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연구자와 기관의 종사자에 의하여 직접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5개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건강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97)가 개발한 증상체크리스트-90을 기초로 하여 오가실(1993)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건강증상조사서-48를 사용하였으며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andhud와 Asrabet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홍미기(2008)가 국문으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SI/SF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김동희(1997)가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정도의 측정은 Brandt와 weinert(1981)가 개발한 개인자원 질문지(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QR)를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건강문제 점수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 동거 가족 여부, 병원이용의 용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문제는 T-test,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건강문제 관련 요인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건강문제 전체 범위는 48~144점까지이며 평균은 81.61점이고 하부 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범위는 30~140점까지이며 평균은 72.71점이고 양육스트레스의 범위는 45~137점까지이며 평균은 79.24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범위는 48~129점까지이며 평균 95.85점으로 나타났다.
-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증상 조사는 직업, 계획된 임신 여부, 학력, 자녀수, 양육책자 유무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결혼생활 만족도($F=8.819$, $p=0.000$), 남편의 도움($F=6.308$, $p=0.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각된 경제 상태($r=-.442$,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3)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r=.560$, $p<.01$), 양육 스트레스($r=0.662$, $p<.01$), 사회적 지지($r=-.289$, $p<.05$)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4) 건강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전 분석에서 건강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경제상태, 남편도움, 결혼생활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건강문제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beta=0.397$, $p=0.037$)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는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도움,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든 변수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상태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가 병원을 방문한 결혼이주여성이거나 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문화적응을 돕고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특히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 한다.

셋째, 현재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가정의 건강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와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의료 이용 요구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넷째, 병원 단위의 다문화가족 진료 팀 등 소외계층의 의료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제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고 경제적 문제와 의료기관 이용이나 절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새로이 이주한 나라에 적응하며 자녀를 양육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취약한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열악한 상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다문화 진료센터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화와 이들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특히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구순주 (1997).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오희 (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주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1997). 정상아 어머니와 저 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예, 박동영 (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1), 33-76.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1), 47-73.
- 김인철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동국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1), 39-70.
- 김혜신, 김경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59-86.
- 김혜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학회지*, 4(1), 5-11.
- 김희순, 신영희, 오가실, 김태임, 심미경 (2005).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아동간호학회지*, 11(4), 415-426.
-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2007,) *2007년 정책보고서*.
- 남인숙, 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학회지*, 17(2), 99-108.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희, 강지현 (2011).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되는 경제수준 간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 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 행동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7(3), 343-364.
- 노혜련, 박선영 (2004). 빈곤가족 건강의 설명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147-175
- 모경환, 최충옥, 임현경 (2010). 다문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 *시민교육연구*, 42(4), 31-53.
- 안은숙 (2009).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준희, 조정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137-176.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오광실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승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주 (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교일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181-217.
- 이은희, 추연식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4), 1619-1624.
- 이선혜 (2011).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정신건강 실태와 인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숙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진 (2011).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월간 복지동향*, 151(1), 8-12.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용 (2012).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재, 김순규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73-91.
- 이진숙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태평양학술재단 연구.
- 임지향, 이홍표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

- 향 및 우울의 조절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2), 49~7.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임희정 (2003).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혜, 오가실 (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467-484.
- 서민숙, 박경숙, 박형무, 박현옥 (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 *대한폐경학회지*, 19(2), 112-121.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31-1152.
- 장덕희, 이경은 (2010).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 *젠더와 문화*, 3(1), 67-97.
-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2010).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6(2), 136-143.
- 조정희 (2010).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충남 지역 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201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115-129.
- 정애화, 김혜진, 정현자 (2011).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 5509-5517.
- 채병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29-46.
- 하명타이 (2005). 충북지역 다문화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28, 21-48.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

- 류학, 39(1), 195-219.
-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자치 행정과.
- 행정안전부 (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자치 행정과.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혜정, 정의식(2014).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정의 건강실태조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 Abidin, R. R. (1990). *Pan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1998).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ra & G. Matin(eds.) *Acculturation*. Washington D. C. : Decadeof Behavior, 17-38.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1991). Refugee adaptation in settlement countries: An overview with an emphasis on primary prevention. *Refugee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services*, 20-38.

- Berry, J. W., & Annis, R. C. (1988). Ethn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native peoples, ethnic groups and sojourners: selected papers from the North American Regional IACCP Conference on Ethnic Psychology held in Kingston, Canada, August 16-21, 1987. Swets & Zeitlinger;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 Berry, J. W. (1990).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ealth consequences of culture contact among circumpolar peoples. *Arctic Medical Research*, 49(3), 142-150.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 Kaplan, H. B., Robbins, C. & Martin,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 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3), 230-244.
- Luster, A. D., & Leder, P. (1993). IP-10, a-CXC-chemokine, elicits a potent thymus-dependent antitumor response in vivo. *The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178(3), 1057-1065.
- Sandhu, s. d., & Asrabadi, R.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Ward, C. & Kennedy, A. (2001). Coping with cross-cultural trans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36-642.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Kim, Eun S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Major in Gerontolog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Data were collected from 65 married immigrant women. The measurements were Symptom checklist-48, Acculturative Stress Scale, Parenting Stress Index(PSI), and 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PQR). Descriptive, T-test,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the married life($F=8.819$, $p=0.000$), and help of husband($F=6.308$, $p=0.003$).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blems and perceived economic status ($r=-.442$, $p<.01$), acculturative stress ($r=.560$, $p<.01$), parenting stress ($r=.662$, $p<.01$) and social support ($r=-.289$, $p<.0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ing str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ny health problems of married immigrant women ($\beta =0.397$, $p=0.037$). Comprehensive interventions designed to enhance the heal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cluding prevent acculturative stress, parenting stress and improve social support may be helpful in mitigating health problem in married immigrant women

부록-〈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성신여자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노인전문 간호사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건강문제의 관련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술적 목적을 통한 통계분석 자료로만 이용될 뿐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오니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연구자: 국립중앙의료원 다문화가정 진료센터 간호사
성신여자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 김은심 드림
연 락 처 : 010-4008-8781
Email : eunsim62@naver.com

<부록 1>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일치하는 번호에 (√)표
를 하거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어머니의 연령은? ()세
2.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3.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어머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5. 어머니의 결혼 기간은? ()년
6. 어머니의 경제 상태는?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여유가 있다
7. 어머니의 동거 가족 수? ()명
8. 어머니의 동거 가족과의 관계? ()
① 부부 ② 시댁식구 ③기타 ()
9. 이번 아기를 임신할 때 계획된 임신이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0. 자녀 상태

자녀	성별	나이
첫째	①남 ②여	
둘째	①남 ②여	
셋째	①남 ②여	
넷째	①남 ②여	

11. 현재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하다 ② 보통이다 ③ 약하다 (구체적으로:)
12. 어머니께서는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족 한다 ② 보통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13. 남편과 다른 가족은 아이가 출생한 후 귀하를 얼마나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도와 주었다 ② 보통이다 ③ 도와주지 않는다
14.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된 책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5. 어머니의 출신국은 어디입니까?
① 일본 ② 중국 ③ 필리핀 ④ 베트남 ⑤ 태국 ⑥ 몽골 ⑦ 러시아
⑧ 기타 ()

<부록2>

♣. 다음은 어머니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 입니다.최근 일주일 동안 귀하의 건강 상태를 잘 나타 내주는 해당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1. 외롭다.	1	2	3	4
2.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1	2	3	4
3. 이유 없이 갑자기 놀란다.	1	2	3	4
4. 손, 발이 떨린다.	1	2	3	4
5. 옷가미에 찌우거나 붙들린 것 같다 .	1	2	3	4
6. 쉽게 운다.	1	2	3	4
7. 어떤 사건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1	2	3	4
8. 근육통이 있다.	1	2	3	4
9. 외로운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변비가 있다.	1	2	3	4
11. 기분이 울적하다.	1	2	3	4
12. 갑자기 열이 나서 화끈거리거나 오한이 나서 추워진다.	1	2	3	4
13. 매사에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난다	1	2	3	4
14. 트림이 잘난다.	1	2	3	4
1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두렵다.	1	2	3	4
16. 식욕이 없다.	1	2	3	4

17.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18. 머리가 아프다.	1	2	3	4
19. 기억력이 없어진다.	1	2	3	4
20.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1	2	3	4
21.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	2	3	4
22. 쉽게 기분이 상한다.	1	2	3	4
23.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24. 사람들 앞에서 자주 실수 한다.	1	2	3	4
25. 설사를 한다.	1	2	3	4
26. 숨이 막힌다.	1	2	3	4
27. 매사에 흥미가 없다.	1	2	3	4
28. 등이나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	1	2	3	4
29. 몸의 일부분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다.	1	2	3	4
30.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1	2	3	4
31. 소변을 자주 본다.	1	2	3	4
32. 신경이 날카롭고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33. 사는데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34.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1	2	3	4
35.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오른다.	1	2	3	4
36. 무의식중에 손을 비비거나 손톱을 씹는다.	1	2	3	4
37. 잠이 잘 안 오고 숙면이 힘들다.	1	2	3	4
38. 기운이 없고 지쳐 보인다.	1	2	3	4

39. 말을 더듬는다.	1	2	3	4
40. 모든 것이 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41. 배가 더부룩하다.	1	2	3	4
42.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1	2	3	4
43. 무서워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1	2	3	4
44. 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많다.	1	2	3	4
45.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1	2	3	4
46.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1	2	3	4
47. 잘 다룬다.	1	2	3	4
48.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부록3>

- ♣.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가 느끼시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	1	2	3	4	5
5.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1	2	3	4	5
6.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1	2	3	4	5
7. 나는 내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온데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1.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12. 한국으로 이주해온 후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낀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5.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1	2	3	4	5
16. 한국 사람들이 내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2	3	4	5
17. 나는 한국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19.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등하게 느낀다.	1	2	3	4	5
20.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는 나의 조국과 그곳 사람들이 그림다.	1	2	3	4	5
22.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2	3	4	5
23.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1	2	3	4	5
24.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 한다.	1	2	3	4	5
25.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1	2	3	4	5
26.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1	2	3	4	5
27. 나는 한국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한국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29. 남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 받는다.	1	2	3	4	5
30.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슬픔을 느낀다.	1	2	3	4	5
31.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32. 나는 한국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3.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다.	1	2	3	4	5
34.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35.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	1	2	3	4	5

<부록4>

- ♣. 다음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가 느끼시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의해 얽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5
5.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1	2	3	4	5
6. 나는 최근에 산 옷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7. 내 인생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1	2	3	4	5
8. 아이가 생김으로써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 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1	2	3	4	5
9. 나는 외롭고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0.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한다.	1	2	3	4	5
11. 나는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1	2	3	4	5
12. 나는 예전과는 달리 세상 일이 재미없다.	1	2	3	4	5
13. 우리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아이가 나를 좋아 하지 않으며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거의 항상 받는다.	1	2	3	4	5

15.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 보다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	2	3	4	5
16.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수고에 대해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17. 우리 아이는 놀 때 웃는 일이 드물다.	1	2	3	4	5
18.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1	2	3	4	5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한다.	1	2	3	4	5
22.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1	2	3	4	5
23. 우리 아이는 때때로 나를 성가시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1	2	3	4	5
24. 나는 나 자신이 ① 정말 좋은 부모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② 부모가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 부모라고 생각한다. ④ 보통 부모들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⑤ 아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자주 울고 보챈다.	1	2	3	4	5
26.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운다.	1	2	3	4	5
27. 우리 아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	1	2	3	4	5
28. 우리 아이는 나를 매우 성가시게 하는 일을 좀 한다.	1	2	3	4	5

29. 우리 아이는 자기가 싫어 하는 일이 생기면 심하게 반응을 보인다.	1	2	3	4	5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운다.	1	2	3	4	5
31. 우리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 및 수유 시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예상외로 힘들다.	1	2	3	4	5
32. 우리 아이에게는 나를 정말 걱정시키는 일이 있다.	1	2	3	4	5
33. 우리 아이는 예상보다 더 문제가 많다.	1	2	3	4	5
34.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필요하다.	1	2	3	4	5

35. 당신 아이가 성가시게 만드는 일들을 잘 생각해보고, 몇 가지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예; 운다. 칭얼댄다. 말을 잘 안 듣는다)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 ① 10이상 ② 8-9 ③ 6-7 ④ 4-5 ⑤ 1-3

36.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데로 적어주십시오.

)

<부록5>

♣. 다음은 어머니들의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아주 많이 그렇 다	많이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많이 그렇 지않 다	아주 그렇 지않 다
1. 나에게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집단이나 사람들에 속해 있다.	1	2	3	4	5	6	7
3. 사람들은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다.	1	2	3	4	5	6	7
4. 나는 가끔 친척이나 친구들이 나의 중요한 문제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7
5. 나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6	7
6. 나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자주 시간을 갖는다.	1	2	3	4	5	6	7
7.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 한다.	1	2	3	4	5	6	7
8. 나에게 장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9. 나는 내 속 마음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1	2	3	4	5	6	7
10. 나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 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흥미와 기술을 키우고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1	2	3	4	5	6	7

12. 나의 가족들은 내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6	7
13. 나에게서 댓가를 바라지 않고도 내게 도움을 주는 친구나 친척들이 있다.	1	2	3	4	5	6	7
14. 나에게서 내가 화났을 때 마음을 풀어 줄 사람이 옆에 있다.	1	2	3	4	5	6	7
15. 나는 자주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17. 나에게서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18. 나에게서 사회적 교제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19. 나에게서 필요시에는 어떤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조언해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7
20. 가끔 나의 친구들은 내가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1. 나에게서 내가 아플 때 도와 줄 사람이 있다 .	1	2	3	4	5	6	7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